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하편 ◀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모닥불 (35문제)-----	1쪽
*농무 (38문제)-----	16쪽

(2) 서사 갈래의 흐름

*구운몽 (40문제)-----	32쪽
*만세전 (43문제)-----	57쪽
*겨울 나들이 (25문제)-----	83쪽

(3) 극 갈래의 흐름

*봉산 탈춤 (43문제)-----	101쪽
*파수꾼 (40문제)-----	128쪽

(4) 교술 갈래의 흐름

*일야구도하기 (22문제)-----	159쪽
---------------------	------

4.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용소와 며느리바위 (13문제)-----	174쪽
*촉규화 (28문제)-----	185쪽
*평상이 있는 국숫집 (19문제)-----	196쪽

(2) 한국 문학의 특성

*홍보가 (31문제)-----	207쪽
*뫼트버들 같이 것거, 춘망사 (17문제)-----	227쪽
*거산호Ⅱ, 이니스프리 호수 섬 (16문제)-----	236쪽

(3) 한국 문학의 확장과 발전

*정선 아리랑 (8문제)-----	247쪽
*황진이 (29문제)-----	252쪽

◆빠른 전체 정답-----273쪽

◆해설-----277쪽

교재 버전: 2021.02.17

“모닥불” 문학 명칭

경리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묘사적, 회상적, 산문적
제재	모닥불	주제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특징	①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성과 향토성을 높이고 있음. ② 열거의 방식으로 대상을 제시하고 있음. ③ 지금 이곳의 상황 묘사와 과거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④ 근대적 평등 의식이 중심에 놓여 있음.		
구성	[1연] 보잘것없는 것들이 타는 모닥불 [2연]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과 동물들 [3연]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핵심 내용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 타는 모닥불:** 농촌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모닥불을 피워 사람과 짐승을 따뜻하게 하는 모습
- **재당도 초시도 ~ 뚝장사도 땀쟁이도:** 농촌 공동체의 일원들이 신분이나 나이 의 차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모습을 열거의 방식으로 나타냄.
- **큰 기도 강아지도:** 두 짐승이 크기,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사람과 어우러져 평등하게 불을 쬐.
- **모닥불은 ~ 슬픈 역사가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된 할아버지의 처지를 표현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환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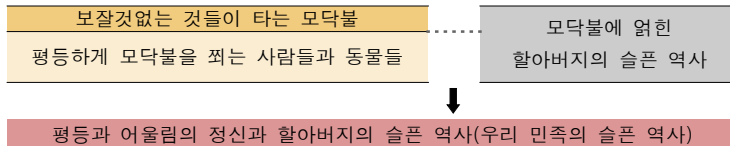
■ ‘똥똥발이’의 해석

- ① ‘떨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똥똥이만 남아 있는 물건’ →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
- ②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 → 할아버지가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것을 표현

■ <모닥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평안도 방언 사용	조사 ‘도’의 반복
• 새끼오리: 새끼줄. • 개니뻬다: 개의 이빨.	• 1연: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 • 2연: 재당도 초시도 ……
- 시적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형상화함. -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함.	[내용]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형식] 운율을 형성함.

■ <모닥불>의 사상 전개 구조와 주제



1연 새끼오리도 헌신작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쭈도 짚검불도 가
 (> 모닥불에 타는 사물들 열거. 당시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닥불에 탄.
 락뉘도 머리카락도 형겁조각도 막대꼬지도 기왓장도 닭의 짚도 개터럭도) 타
 는 모닥불 ▶ 1연: 보잘것없는 것들이 타는 모닥불

2연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든도
 (> 모닥불을 찌는 사람들 열거. 신분이나 나이 등에 차이가 있지만 함께 모닥불을 찌는 → 따뜻한 공동체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쪄인다 ▶ 2연: 평등하게 모닥불을 찌는 사람들과 동물들
 (> 모닥불을 찌는 짐승들 열거. 크기, 나이(성장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함께 불을 찌는 →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 강화

3연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
 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려사가 있다 ▶ 3연: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것 할아버지의 불행했던 과거 (사슴)
 또는 화상을 입은 것에 →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대한 표현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하기도 함. 재재 정리

<모닥불>은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찌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이다. 이 시에서 두드러진 점은 열거법을 사용한 것이다. 1연에서는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사물들을, 2연에서는 모닥불을 찌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거법은 판소리와 사설시조 등의 옛 문학에서 자주 쓰인 것으로 전통 계승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이 실린 시집 사슴(1936년)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시인의 고향인 평안도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석은 자신의 시에서 평안 방언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평안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이 시는 1, 2연과 3연의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뉜다. 1연과 2연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닥불을 찌는 평화로운 장면을 그리다가 3연에서는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제시하는데, 이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열거법은 ... 이해할 수 있다.

판소리와 사설시조에는 어떤 대상을 열거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자주 나온다. <모닥불>의 열거법은 이 같은 옛 문학의 표현 방식에 이어져 있다.

2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석은 그가 쓴 거의 모든 시에서 고향인 평안도의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시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1930~1940년대 한국 시에서 지역 방언을 이처럼 많이 사용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 그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그 당시 한국인으로는 아주 드물었던 대학 출신의 지식인이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백석 시에서의 평안 방언 사용은 의식적인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모닥불” 학습 활동 순서

1. 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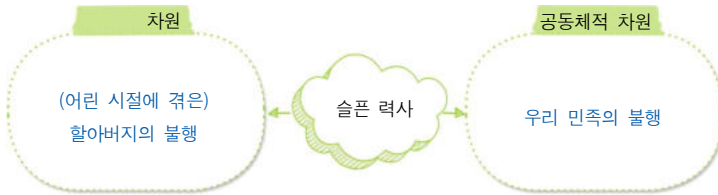
(1) 1연에 나열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2) 2연에서 모두가 몰리셔서 모닥불을 쬐는 시적 상황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신분, 나이 등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어우러져 모닥불을 쬐고 있음을 의미한다.

(3) 3연에서 ‘슬픈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누어 짚고 함께 이야기해 보자.



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1) 이 시에는 ‘새끼오리, 개니락다’ 같은 평안 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을 참고하여 시인이 방언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백석은 시에 평안 방언을 사용하여 고향 마을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였으며, 친족 공동체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 시적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시 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평안 방언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 지역 말을 의도적으로 살려 씀으로써 이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2) 1연과 2연에서 반복되고 있는 조사 ‘도’가 작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효과를 낳는지 말해 보자.

- **내용 면:** 다양한 사물이 함께 모닥불에 타고 또 다양한 존재가 평등하게 그 불을 쬐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 **형식 면:** 같은 소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작품의 음악성을 높인다.

3. 백석의 <모닥불>에서 영향을 받아 창작된 시이다. 백석의 <모닥불>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모닥불 _ 안도현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 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뚫은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 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얼음장이 강물 위에 놓는 선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십 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 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혹혹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 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작품 감상

■ **갈래:** 현대 시, 서정시

■ **주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지

■ **해제:** 이 작품은 ‘모닥불’을 주요 소재로 삼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모닥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서 피어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로 그려진다. 마지막 행에서는 ‘한 그루 향나무’에 비유되며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송고하게 표현되고 있다.

(1) 시에 나타난 ‘모닥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피어오르는 곳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둡고 춥고 가난한 번두리 •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 •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추운 때 •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직 •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되는 쓸모 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에 나아가려는 때

(2) (1)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

춥고 가난한 번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의지를 뜻한다.

(3) 이 작품이 백석의 <모닥불>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있는지 모듬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이 작품도 백석의 <모닥불>과 마찬가지로 ‘모닥불’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어.
- 백석의 <모닥불>에서 조사 ‘도’를 반복하고 모닥불에 타는 소재들을 열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에서’, ‘에’, ‘- 는’과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를 반복하고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과 피어오르는 때를 열거하고 있어.
- 백석의 <모닥불>에서 ‘새끼오리’, ‘흰신짚’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과 ‘나그네’, ‘붓장사’, ‘땀쟁이’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관심과 시선을 준 것처럼, 이 작품도 ‘공사장’, ‘쓰레기장’, ‘여공’, ‘양말에 구멍 난 아이’와 같이 소외된 존재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모닥불” 두집 집사

11 헌신적도 ... 타는 모닥불

모닥불에 타는 이 온갖 사물들은 당시 농촌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타서 사람과 짐승을 따뜻하게 하는 모닥불을 피워 올린다.

12 계양도 초사도 ... 붓장사도 땀쟁이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은 열거한 부분이다. 이들은 당시 농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법한 사람들로, 신분이나 나이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함께 모닥불을 쬐는 점에서 평등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을 자아낸다.

13 큰 개도 강아지

모닥불을 쬐는 짐승을 열거한 부분이다.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듯이 두 짐승은 크기, 나이(성장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짐승들이 사람과 어우러져 불을 쬐는 것으로 묘사되는 데서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가 강화된다.

14 모닥불은 ... 슬픈 력사가 있다.

‘몽둥발이’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떨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로 보아 할아버지가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두 가지 해석 모두 할아버지의 불행했던 과거, 즉 ‘슬픈 력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 준다.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하기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끼오리도 현신짜도 소풍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
 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겔조각도 막대꼬치
 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
 위도 갖다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
 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력사가 있다.
 - 백석, 「모닥불」 -

(나)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 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 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얼음장이 강물 위에 놓는 선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십 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 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흑흑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 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 안도현, 「모닥불」 -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 보조사의 반복과 열거를 통해 대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 ㉣ 하찮고 쓸모없는 것을 통해 민중의 곤궁한 삶과 합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 ㉤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이국적 세계를 향한 동경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2. ㉠과 같은 상황이 드러난 것은?

- ㉠ 내 마음 버혀 내여 더 달을 만들고져 / 구만 리 당면(長天)의 번듯이 걸려 이셔 / 고은 님 겨신 곳에 가 버취여나 보리라.
 - 정철 -
- ㉡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 이 몸이 칩지 아니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
- ㉢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헌디 벗 업시 혼조 안조 / 평조(平調)한 님히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 언의 님 이 죠흔 뜻 을 알리 잇다 흐리오.
 - 김수장 -
- ㉣ 풍설 석거친 날에 못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야 /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언매나 치오신고 / 고국(古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계워 흐노라
 - 이정환 -
- ㉤ 강산(江山) 죠흔 경(景)을 힘센 이 닻틀 양이면 / 니 힘과 니 분(分)으로 어이혀여 엇들썬이 / 진실(眞實)로 금(禁)허리 업쓸씨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3.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기능의 시어들을 나열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중심 제재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현재의 상황 묘사와 과거 회상을 통해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를 반복하여 진실 규명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4. (나)의 ㉠과 유사한 시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보기>에서 모두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
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 두는 /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비슬고등학교 (대구)

5. (가)의 1, 2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을 쓰고, 이를 위해 사용된 단어를 찾아 작품의 형식면에 미친 영향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해당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예시] 1, 2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된 표현방식은 (㉠) (으)로 ‘㉡’을/를 사용하여 (㉢)고 있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6. (가) 시의 영향을 받아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두 작품을 연관 지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작품 모두 ‘모닥불’을 중심 소재로 사용하였다.
- ② 두 작품 모두 주변의 보잘 것 없고 소외된 대상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조사 ‘도’를 반복하고, (나)에서는 ‘에서’, ‘에’, ‘는’을 반복하고 있다.
- ④ (가)의 모닥불은 ‘공동체의 평등’을 의미하고, (나)의 모닥불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 ⑤ (가)에서 모닥불은 과거 할아버지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였으나 (나)에서는 희망을 불어넣는 향나무로 표현되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족도 짚검불도 가락났도 머리카락도 형겁조각도 막대꼬
 치도 기왓장도 닭의 짚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
 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로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
 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력사가 있다.

- 백석, 「모닥불」

(나)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 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뚫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중략>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흑흑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 안도현, 「모닥불」 에서

광희고등학교 (경기)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대상의 다양함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민족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환기시킨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짧은 문장을 배치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가)는 시행을 늘어뜨려 시의 호흡을 길게 만든다.
- ⑤ (나)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한다.

광희고등학교 (경기)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지역 방언으로 시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
- ② ㉡은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 ③ ㉢으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시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 ④ ㉣은 화자가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대상이다.
- ⑤ ㉤은 현실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한다.

광주동성고등학교 (광주)

9. (가)와 (나)의 작품을 살핀 후 각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각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가)의 작품에서 4개, (나)의 작품에서 3개를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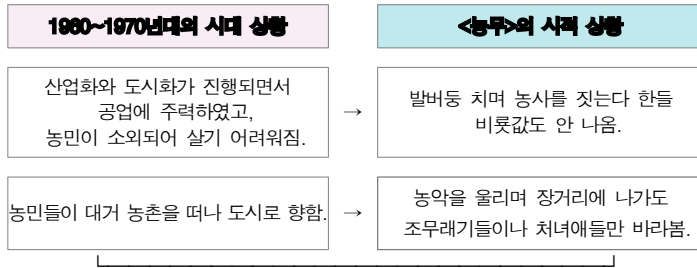
“농무” 문학 정리

정리

갈래	현대 시, 서정시, 농민 시	성격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제재	농무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②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③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④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쉬움.		
구성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며 원통해함. [7~10행] 장거리에서 농악을 울림. [11~16행]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자포자기함. [17~20행] 신명이 나 농무를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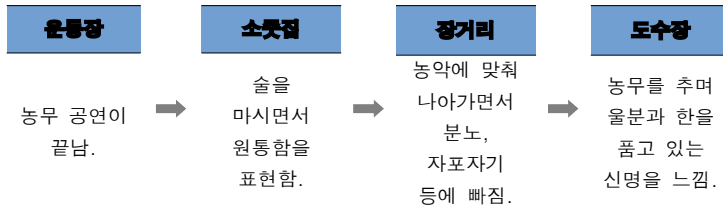
핵심 내용

■ 당대의 시대 상황과 <농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원통함, 울분 등이 표출됨으로써, 소외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남.

■ 공간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과정



■ <농무>에 드러나는 정서

- 공연 뒤의 쓸쓸함, 허탈감
- 답답하고 고달픈 삶에 대한 원통함
- 농촌 현실에 대한 분노, 체념, 자포자기
-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

<농무>는 1970년대 초 농촌 현실을 노래한 시이다. 1.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답답하고 고달픈 삶**, 그런 현실에서 비릿된 울분과 절망을 ‘농무’를 통해 드러내었다. 산업화 이전의 농촌 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에서 농민들의 흥겨운 신명을 표현하던 농무가, 지금은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성격의 것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농무>에는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인 ‘임꺽정’과 ‘서림’이 나오는데, 소설 속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 농무를 추는 농민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었다. 2. 이는 **앞선 문학의 창조적 계승에 해당하는 보기라** 하겠다. 농민의 어두운 현실을 증언하는 <농무>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에서 <농무>는 이후 우리 시의 한 주류로 떠오르게 되는 현실 참여적 민중 시의 선구라 할 수 있다.

시선
1행 장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①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함.
 ②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음.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공간의 이동
쓸쓸함을 불러일으킴. 이 역시 농촌의 쇠락을 표현한 구절로 보기도 함.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화자가 여러 시인을 가리키는 '우리'로 자칭함. - 농민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음.
5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함. ▶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며 원통해함.

7행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10 철없이 길길대는구나
 ▶ 7~10행: 장거리에서 농익을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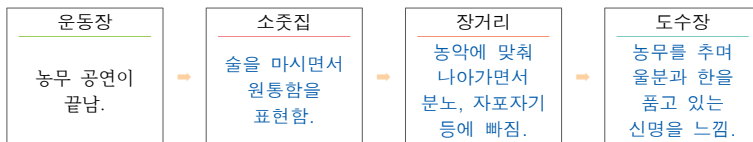
11행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자조적 표현. 이렇게 살아 봐야 보람이 없다는 힌트
15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당시 농촌의 현실
 아예 어떤네에게나 맡겨 두고
 ▶ 11~16행: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자포자기함.

17행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①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 통해 농민들의 엄청난 울분을 드러냄.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②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 울
분을 풀어냈다고도 볼 수 있음.

20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무)
 ▶ 17~20행: 신명이 나 농무를 춘.

“농무” 밖의 농무 세계

1. 이중에 따른 이 시의 사상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아래에 보자.

1960 ~ 19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 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19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과 저곡가 정책으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차츰 농촌을 떠났고, 농업 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에서 1975년에는 37.5%로 크게 줄었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빛을 지고 있는 농가는 1971년 전체 농가 가운데 75.7%에 이르렀다.

- ,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1)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이 드러난 시구를 찾아보자.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2) 농민들의 이농으로 살살해진 농촌의 풍경을 형상화한 시구를 찾아보자.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꼭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자.

- 농민들을 분노와 절망 속에 몰아넣는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 조선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맞서 싸웠던 임꺽정과 서림을 끌어들이는 걸 보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3. 도시 노동자의 현실을 그린 시이다. <농무>와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저문 강에 삼을 씻고_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사상)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작품 기법

- **갈래:** 현대시, 서정시
- **주제:**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슬픔과 체념
- **해제:** 1978년에 발표된 이 시는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듯이 암담한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1) 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자.

예시 답안 <농무>의 화자는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다가 울분에 차서 농무를 추며,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화자는 도시에서 하루 일을 끝낸 뒤 삼을 씻고 체념하면서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다.

(2) 두 시의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한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농민 또는 도시 노동자 어느 한 사람의 현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의 농민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 두 시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서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예시 답안 <농무>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지만,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화자는 그러한 현실을 슬퍼하면서도 그저 체념하고 있다.

“농무” 읽기 순서

* 영의 시구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바로 공연의 끝을 알리는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 나며, 허탈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농무” 구절 읽기

㉠ 술편다 딱이 내렸다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는 장면이 펼쳐짐으로써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당시 농촌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 구절이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 구경꾼이 몰아가고 난 영 빈 운동장

사람들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라는 데서 쓸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이 역시 농촌의 쇠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보기도 한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화자가 삶에 대한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의 의미는 이후의 시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만

장거리로 나선 뒤 ‘우리’에게는 조무래기들만 따라붙을 뿐이다. 여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걱정이처럼 울부짖고’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은 어린 시절 신경림이 즐겨 읽은 홍명희의 소설 <임걱정>에 그려진 두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각각의 성격과는 별개로 두 사람 모두 당대 현실에 분노하여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서림이 임걱정을 배신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림에 비유된 사람을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인물,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 시의 의미 맥락과는 무관하다.

㉥ 이가짓 / 산 구석에 처박혀 팔매동 권팔 무엇하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아 봐야 보람이 없다는 한탄을 하고 있다.

㉦ 비웃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어떤내에게나 팔겨 두고

당시 농촌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다. 화자는 발버둥을 치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대가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체념하며 자포자기하고 만다.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화자는 신명이 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흥겨움의 정서를 나타내지만 이면적으로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엄청난 울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신명이 나지 않을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화자가 농무에 몰입하면서 그 현실을 잠시 잊었다고 본다면, 화자가 농무를 통해 일시적으로 신명을 내며 다소 울분을 풀어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하면 여기에서의 신명은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農舞)」

서울고등학교 (서울)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소외된 계층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상반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실에 체념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는 현실에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 분노하는 태도를 보인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2. (나)와 상황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 뉘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오리.
 - 이호우, 「살구꽃 핀 마을」
- ②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③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 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④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다도 흥겹다. /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할 빛 얘기 / 약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 어디를 들어가 섰더라도 벌일까 / 주머니를 털어 색시 집에라도 갈까 /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끼 한 마리 들고 / 달이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
 - 신경림, 「파장(罷場)」
- 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 한 쾌의 혀가 /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뻗뻗한 지느러미. / 막대기 같은 생각 /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

서울고등학교 (서울)

3. (나)의 ㉗ ~ ㉞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 ‘공연을 위한 분장이 지워져 얼룩져 있는’ 또는 ‘분노로 얼룩져 있는’으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㉘ 지역 사회를 책임질 젊은이는 농촌을 떠나고 철없는 어린 아이만이 남아 있는 쓸쓸한 풍경을 그리고 있다.
- ③ ㉙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분노하는 무능한 사람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농촌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㉚ 농촌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구체적 이유가 나타나 있다.
- ⑤ ㉛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허탈한 심정을 신명 나는 동작으로 분출하는 역설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4. (가)에서 노동자의 삶을 빗대어 표현한 자연물을 찾고 노동자의 삶의 공통점을 쓰시오.

• 자연물 1 : 물 - 공통점 : 덧없이 흐른다.
 • 자연물 2 : (㉞) - 공통점 : (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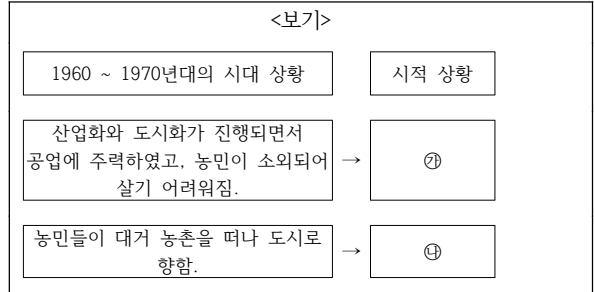
서울고등학교 (서울)

5. (나)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㉗ ~ ㉞에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장소	㉗	㉘	장거리	㉚
행위 및 정서	농무 공연이 끝남	원통함을 표현함	분노 자포자기	신명을 느낌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6. <보기>의 ㉗와 ㉘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② ㉗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 하랴.
- ③ ㉗ :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④ ㉘ :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 ⑤ ㉘ :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7.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 ② 농무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이농(離農)으로 인해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농촌 현실에 대한 분노, 체념, 자포자기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소외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8. (나)에서 농무를 추며 울분과 한을 품고 신명을 느끼는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9. ㉔에 드러난 표현이 사용된 것은?

- ① 눈 마주 휘여진 다를 뉘라서 굽다턴고 /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 썩인
가 흐노라
- 원천석
- ② 천만 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 니 모습
돌 디 업서 냇?의 안자시니, / 저 물도 니 은 곱혀 우리
밤길 네눗다.
- 양방언
- ③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單手)를 네 듯고 이제 보니 / 도화
(桃花) 쓴 뭍은 물에 산영(山影)조초 잠겼세라. / 아희야, 무
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옌가 흐노라
- 조식
- ④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 이 중(中
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
- 성흔
- ⑤ 귀쏘리 저 귀쏘리 어엿부터 저 귀쏘리 / 어인 귀쏘리 지는
돌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네어 사창(紗窓) 여인 짐을 솔뜨리 씨오노고야. /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 썩인가 흐노라
- 작자 미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징이 울린다 ㉔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숫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㉔뺑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㉔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㉔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나)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㉔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㉔샨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10. 다음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960 ~ 1970년대의 시대 상황

우리 경제는 공업화에 의한 수출 주도형 체제로 전환하면
서 경제 수치상으로 볼 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
략) 통계에 의하면 1969년에서 1977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가 800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쌀을 수매하여 도시의 생산력을 높였고 이로 인
해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이러한 공업화, 산업화의 과정은 점차적으로 농촌의 붕괴와
도시 빈민의 증가를 가져왔다.
- 오세영 외, <한국 현대 시사>에서 일부 수정

- ① (가)의 ㉔은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소외된 농촌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가)의 ㉔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체념하는
당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군.
- ③ (나)의 ㉔은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
고 있군.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농민과
도시 노동자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산업화에서 소외되어 발생한 울분과
체념을 인식의 전환으로 해소하고 있군.

“구운몽” 문력 명칭

정리

갈래	고전 소설, 장편 소설, 몽자류 소설	성격	환상적, 불교적
제재	연화봉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	주제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함.
특징	①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지님. ②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짐. ③ 조선 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됨. ④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꾸기 전]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는 성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려 성진이 팔선녀와 만난 후 숙세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끌리자 그것을 알아챈 육관 대사가 성진을 인간 세계로 추방하는 벌을 내린다. • [꿈] 어둠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리는 양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하여 함께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는 한편,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승상이 된다. • [꿈 깨 후] 깨달음을 얻는 성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던 양소유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대중을 교화하는 데 힘쓰다 극락왕생한다. 		

핵심 내용

■ 고전 소설의 개념

: 일반적으로 개화기 소설이 등장하는 19세기 말까지의 소설을 가리킴.

■ 고전 소설로서 <구운몽>의 특징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구운몽>의 특징
인물	재자가인(才子佳人) 형, 영웅적 기질을 지님.	- 성진: 젊고 총명한 승려 - 양소유: 문장과 무예에 능통함.
사건 전개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배경	중국, 우리나라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함.
주제	권선징악적 주제, 행복한 결말	주인공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음.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일생이 전개되는 일대기적 구성	작품 전체는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이며 양소유의 삶은 일대기적 구성

■ <구운몽>의 환몽 구조

환몽 구조란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되 그것이 환상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꿈 이전 → 꿈 → 꿈 이후'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삶이란 허망(무상)하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 '꿈'을 전후한 성진의 가치관 변화



■ 제목의 의미

九 아홉 구	雲 구름 운	夢 꿈 몽
-----------	-----------	----------

아홉 구름의 꿈

<p>아홉 명의 인물 성진과 팔선녀 (양소유와 여덟 아내)</p>	<p>덧없는 인생 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은 덧없는 세상일을 이룰 때 쓰이는</p>	<p>꿈 또는 꿈 같은 인생 인물이 꿈속 경험을 통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음.</p>
---	--	---

아홉 사람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아홉 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또는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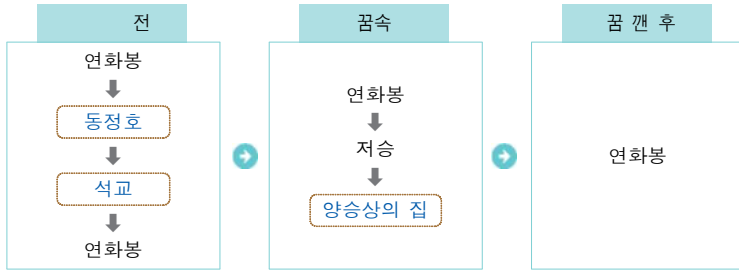
■ <구운몽>의 등장인물

	성진	팔선녀
꿈꾸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관 대사가 중히 여기는 제자 • 팔선녀를 만나 세속 부귀영화를 흠모했다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태어남. • 꿈에서 깬 뒤 불도에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을 다스리는 선녀 위 부인을 모시는 여덟 명의 선녀들 • 성진의 마음을 어지럽힌 별로 이들도 인간 세상에 태어남. • 꿈에서 깬 뒤 불도에 귀의하여 성진과 함께 극락 세계로 감.
	양소유	양소유의 2제 6첩
꿈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진이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 • 용모가 아름답고 문무에 뛰어난 인물로,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공명을 누림. • 말년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불도의 귀의할 결심을 하는 찰나 꿈에서 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선녀가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들 • 각자 개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며, 모두 양소유와 결혼함. • 양소유의 불도 귀의를 함께 하고자 하다가 꿈에서 깬.
	육관대사	
꿈 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진의 스승으로 중국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침. • 하룻밤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고, 성진이 깨달음을 얻자 그에게 연화도량을 맡기고 서천으로 돌아감. 	


<구운몽>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 소설로, 1.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한다. 김만중은 당쟁에 휘말려 평생 세 번이나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두 번째 유배지인 선천에서 <구운몽>을 지었다. 1687년(숙종 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의 일이다. 현실 세계의 주인공인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이 되어 여덟 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하는 등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구운몽>의 중심 내용이다.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입몽(入夢), 꿈에서 깨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을 각몽(覺夢)이라고 한다. <구운몽>은 이처럼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꿈과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 전개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며, 2. 제목에 '몽(夢)' 자가 들어 있어 '몽자류 소설'이라고 한다. 또,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 하기도 한다. 환몽 구조는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구운몽” 학습 활동 순서


1 소설의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다음 말문을 참고하여, 짝과 질문하고 답하며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孔孟)의 글을 읽고, ...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 그 도가 높고 아름답구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나)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벼옷을 입은 미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 (), (나)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었지?

☞ (가)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고, (나)는 양소유가 부귀공명을 다 누리 후 부인들에게 한 말이었어.

☞ 왜 (가)에서 (나)로 생각이 바뀌었을까?



☞ 승려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꿈속에서는 양소유가 되어서 마음껏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었지. 그런데 인간은 죽기 마련이고 그런 부귀공명도 영원하지 않으니 덧없다고 느낀 것 같아.

☞ 꿈에서 깨 성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 꿈에서 깨 성진이 한 말을 보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또 육관 대사와 대화하면서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했는데, 아마 삶도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



3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조선 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잘 읽고, 꿈의 기능에 주목하여 <구운몽>과 비교해 보자.

신라 때 조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출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1)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전	꿈속	꿈 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진이 바라던 것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 • 조신이 바라던 것 태수 김흔의 딸과 혼인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소유가 겪은 것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여덟 부인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림. • 조신이 겪은 것 김흔의 딸과 혼인하여 40여 년을 살았지만 점점 가난해져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헤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진이 깨달은 것 부귀영화의 허무함 • 조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2) 작품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하는 장치이다.
-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삶만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 보면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구운몽” 읽기 1부

1. 성진이 스승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승려의 몸으로 술을 마시고 팔선녀를 만나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불교의 계율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스승이 이를 알게 되면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2. 성진이 제지른 세 가지 잘못은 무엇인가?

- 몸: 술에 취했다.
- 말: 팔선녀를 만나 언어로 수작했다.
- 뜻: 남자로 태어나 장수나 정승이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적막하게 지냄을 한탄했다.

3. 양소유가 인생이 덧없다고 느낀 까닭은 무엇일까?

양소유는 부귀공명을 누렸지만 문득 삶이 영원하지 못하며 죽은 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이 덧없다고 느낀 것이다.

4. ‘ ’은 누구일까?

육관 대사

5.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단서로 할 때, 꿈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교과서 167쪽 4~5행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 부처를 외우는데’

6. ‘장주의 꿈’은 이 소설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구운몽>의 환몽 구조에 따르면 성진의 삶이 현실이고 양소유의 삶이 꿈에 해당하지만, 성진은 동정호의 용왕을 만나고 복사꽃을 명주로 바꾸기도 하며, 나중에는 극락세계로 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어서 성진의 삶도 마치 꿈속의 삶처럼 비현실적이다. 육관 대사가 인용한 ‘장주의 꿈’은 이러한 <구운몽>의 특징과 맞물려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하며 무의미함을 알려 준다.

“구운몽” 읽기 2부

II 형산 언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결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견하고 있었다.

<구운몽>의 도입부 즉, 꿈꾸기 전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 남악 형산의 언화봉이다. 중국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다섯 개의 명산이 있는데 그 중 남쪽에 있는 산이 형산이고 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다섯 개 중의 하나가 언화봉이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선녀 위 부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나라 때 서역에서 온 육관 대사가 여기에 머물러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설법을 하였다. 육관 대사가 설법을 할 때면 동정호 용왕이 와서 설법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구운몽>에서는 ‘현실’에 해당하는 꿈꾸기 전의 공간이 매우 환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 중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든다.

2 어떤 봉오리 땅에 떨어져 어떤 개의 명주로 퇴락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석교에서 마주쳐 언어로 서로를 희롱하다가 성진이 복사꽃을 명주로 변하게 하는 환상적인 장면이다. 팔선녀가 성진이 만들어 준 명주를 받아가는 것은 이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한다.

3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 대장부의 일이라.

‘공맹’은 유교의 성현인 공자와 맹자를, ‘요순’은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요임금과 순임금을 가리킨다. 공맹의 글을 읽고 요순 같은 이상적인 임금을 섬기며,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부귀와 공명을 떨치는 대장부의 삶이란 승려로서 실행할 수 없는 세속적 삶으로 유교적 이상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조선 시대 양반의 이상과도 통한다.

4 향토에 견단을 다시 피우고 ... 일천 부처를 외우는데

성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불경을 외운다. 그러던 중에 스승의 부름을 받고 방장으로 꾸지람을 듣고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양소유로 환생하게 된다. 교과서 170쪽에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지옥에 끌려가는 장면이나 양소유로 환생하는 장면에서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천 부처를 외울 무렵부터 꿈이 시작되는 것이다.

5 내가 떠돌이에서 풀려난 후로부터 ...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양소유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자신이 성진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성진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 성진으로 살았던 때의 기억과 마주하는데, 이는 성진과 양소유가 동일인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양소유로서의 삶이 성진의 꿈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6 모든 남자들이 다 견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양소유의 부인들은 모두 성진과 석교에서 만났던 팔선녀이고, 팔선녀는 연화봉을 다스리는 선녀인 위 부인을 모시던 시녀들이었다. 따라서 양소유가 문득 출가할 뜻을 밝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다.

7 자기의 몸은 작은 알자의 ... 지는 달이 강가에 비치고 있었다.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성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구운몽>의 도입부에서는 어디서부터 꿈이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 향토에 견단을 피우고 포단에 앉아 잠깐의 꿈을 꾸는 사이에 양소유의 일생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내가 말하기를 ... 어느 것이 꿈이나?

성진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면하고 양소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 육관 대사는 그런 성진에게 아직 꿈을 깨지 못한 것이라 말하면서 성진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胡蝶之夢)’ 고사를 인용한다. 이는 어느 날 장자가 근심 없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꿔는데,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꿔는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호접지몽’은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현실과 꿈,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고사로, 오늘날 인생의 덧없음(무상함)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육관 대사는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나?’라고 물어봄으로써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9 팔선녀가 풀려나와 ... 머리를 쥐어 찌렀다.

세속의 삶을 상징하는 연지분과 머리를 쥐는 것으로 팔선녀가 불가에 귀의(貴意)함을 나타내었다.

10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 극락세계로 갔다.

<구운몽>의 뒷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이룬 성진은 결국 그 허망함을 깨닫고 꿈을 깬 후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스승인 육관 대사의 뒤를 이음으로써 정신적인 삶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세계로 갔다는 결말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행복한 결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벼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목과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중략>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을 뵈웁니다.”

태사가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공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중략>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원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 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金剪刀)를 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사퇴하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 인이 능히 이렇듯 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白毫)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뒷부분 줄거리]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 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 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 김만중, 「구운몽」 -

비슬고등학교 (대구)

1. 윗글과 <조건 1>의 주인공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쓰고, ㉡깨달음을 얻기 전 두 인물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건 2>를 참고하여 쓰시오.

<조건 1>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 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조건 2>

• ㉠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할 것.

비슬고등학교 (대구)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과 꿈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통해 환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불교를 유교적 사상보다 더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운몽’은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의 숫자와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⑤ 인물 간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풍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 ~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말하는 이가 대상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 : 고사를 인용하여 지향할 바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물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
- ③ ㉢ : 노승은 양소유가 기억하는 바를 믿지 못해 추궁하고 있어.
- ④ ㉡ : 함께 지냈던 세월에 대해 후회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
- ⑤ ㉢ :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굳은 결심을 드러내고 있어.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의 특징은 전기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기성이란 비현실적 요소를 소설에 삽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사건 해결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재자가인(才子佳人)이며, 조력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인과응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한 후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나간 양소유의 모습에서 비범한 재자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석杖(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는 인물의 행위는 주인공을 위한 조력 행위라고 할 수 있어.
- ③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모습에서 작품의 전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닫는’ 모습에서 인과응보를 통해 외부의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설정은 행복한 결말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어.

※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나라 형상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 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水晶宮)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다섯 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 잔을 기울였다.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⑦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낮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중략>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물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禪房)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

두워졌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孔孟)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堯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권에 조회(朝會)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권의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중략>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에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여덟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던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배움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떠뒀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매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남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남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중략>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A]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B]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

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가 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값기 어렵나이다.”

- 김만중, <구운몽>

(나)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 에서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윗글 (가)에 등장하는 공간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속적 연민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의 실제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다.
- ② 부귀공명이 현실화된 꿈의 공간 ㉡은 현실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공간인 ㉢과 대비된다.

- ③ 꿈속 공간인 ㉠과 ㉡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 삶을 미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④ 불교적 색채가 담긴 ㉢과 유교적 질서가 드러나는 ㉣이 대비되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⑤ ㉠은 ㉡으로 오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꿈과 현실의 중간계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6. 윗글 (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 ④ 소설 속 인물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몽자류 소설은 글자 그대로 '몽(夢)'자가 붙은 소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소설의 구조는 환몽구조로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다시 꿈에서 깨는 과정을 거쳐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구조이다. 이 때 꿈속에서 새로 태어난 주인공은 그 이전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꿈을 깨면서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몽자류 소설은 현실과 꿈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 이에 속하는 작품들의 현실인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는 다른 인물로서 꿈과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 ① 성진이 인간부귀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몽자류 소설의 현실 인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소화상과 대승상이라는 대비적 지위를 통해 현실의 자아와 꿈 속 자아는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③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전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인물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군.
- ④ 꿈에서 깬 성진이 인간세상에서 입신양명한 양소유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한 것이군.
- ⑤ 고승이 환술로 승상이 취몽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꿈과 현실의 차이를 보다 크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창동고등학교 (서울)

8. 윗글 (가)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B]는 직접적 설명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B]는 묘사를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B]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A]는 이상적 공간의 모습, [B]는 현실적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⑤ [A]는 한 가지 사건을 상세히, [B]는 여러 사건을 빠른 호흡으로 서술하여 꿈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9. 윗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노화상과 김흔은 주인공을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용왕과 관음보살은 인간의 광약인 술이 부처의 계율을 어기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꿈속에서 조신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였고 성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양소유의 삶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반면 조신 가족의 삶은 가난이라는 세속의 난관이 담겨 있다.
- ⑤ 성진과 조신은 불가의 법문이 출세 지향적이라 품격이 없음을 회의를 느껴 보다 인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만세전” 문학 명칭

정리

갈래	현대 소설, 중편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자기반성적
배경	• (시간) 만세(3·1 운동) 전夜の 겨울, 1918년 • (공간) 일본과 식민지 조선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관부 연락선에서 겪은 일		
주제	일본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		
특징	①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음. ②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음. ③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뚜렷함. ④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임.		
구성	[발단]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한다. [전개] '나'는 동경의 술집이나 고베에 들러 아는 여성들을 만난다. [위기]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탄 관부 연락선 안에서 식민 지배의 폭력적인 실상을 알고 분노한다. [결정] 부산에서 경성으로 오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나'는 큰 분노, 깊은 환멸에 사로잡힌다. [결말] 경성에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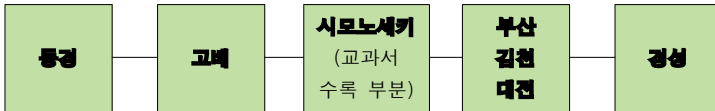
핵심 내용

■ 현대 소설의 개념

: 신소설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근대 소설. 근대적인 국문체로 쓰였고 등장인물이 개성적이고 입체적이며 사건 전개 방식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만세전>의 여로 구조

: <만세전>은 주인공인 '나'(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에 해당한다. <만세전>에서 이러한 구조는 '나'가 자기 자신과 조선의 현실을 점차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 <만세전>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서술함. → '나'의 시선에 따라 조선인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일본인의 태도와 당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서술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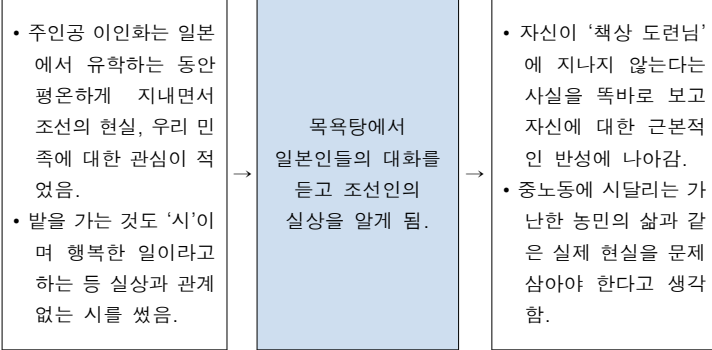
■ 일본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

일본인들과 관련된 말	'나'의 태도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 '상판대기', '굴자', '촌뜨기' 등		못마땅하게 여김. (부정적 태도)

■ '나'가 받은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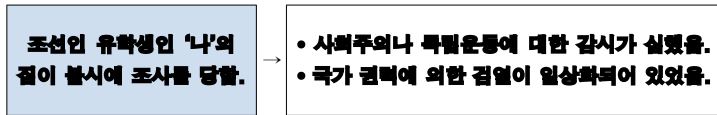
일본인들의 대화	➔	'나'의 반응
조선의 노동자를 속여 데려와서 일본 회사에 팔아넘긴다는 내용		조선인들이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현실을 알고 놀람.

■ <만세전>의 의의 - 자기반성의 정신



→ 청년 지식인의 이 같은 자기반성은 염상섭 초기 문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문학사의 진전을 이끄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나'의 집이 조사당하는 부분에 드러난 당대 조선인의 상황



■ '뜨끈뜨끈한 눈물'의 의미

- ①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 ②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고독감, 슬픔 등
- ③ 현실 대응과 관련한 무력감

■ <만세전>의 원제 '모지(무덤)'의 상징성

조선의 현실	-	모지(무덤)
당대(1910년대 후반) 조선의 앞당하고 결망적인 현실을 상징함.		
• 식민 지배 세력이 조선인들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굶. • 조선인들이 생기를 잃은 채 마치 망랑(魍魎, 도깨비)이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감. '나'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		

“탄압민” 막춤 할당 무덤

1 소설의 사건 전개 양상을 살펴며, 각각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

'나'의 심리	'나'의 상황
보이는 얼굴의 사람과 촛뜨기의 대화를 들음.	놀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의문과 불안, 부끄러움을 느낌.
권자(형사)의 호출을 받음.	권자에게 불쾌감과 분노, 연민 등을 느낌.
배 밖으로 나와 인버네스, 양복쟁이에게 가방 검사를 받음.	무슨 망령을 부릴까 봐 불안해하고 배를 타지 못할까 봐 초조해함.
서류 봉치를 양복쟁이에게 건네주고 다시 배에 올라탐.	안도감, 고독감, 슬픔 등을 느낌.

2 소설에 나타난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상황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절을 찾아보자.

- , 조선 쿠리, 내지인, 노동자 모집원, 사회주의, 독립사상 등
- 그 가련한 노동자들이 ... 몸이 팔려 가는 것이,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 웨질 지경이면, 학생복에 망토를 ...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등

(2) 당대 조선인의 현실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이 작품 전반을 통해 당대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받으며 멸시받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당대 조선 농군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잘살기 위해 일본에 와서도 낮은 품삯을 받고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나가 짐 조사를 당하는 부분에서는 당대에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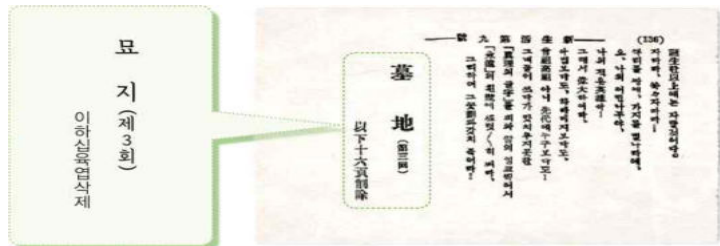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
- 청년 지식인의 자기반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

3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목욕탕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시'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적어 보자.

'시'에 관한 생각의 변화	자신의 감상
' '는 자신이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나름의 진실을 담아 '흙'을 예찬하는 시를 썼을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시라는 등 '흙'을 예찬하며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현실과 동떨어진 시를 썼었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후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주인공 '나'처럼 나도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가 좋은 시인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생각 변화가 참 바람직해 보인다.

4 다음은 <만세전>이 일제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 (제3회)> 16면이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신생활》의 지면. <묘지>는 <만세전>의 원래 제목이다.

(1) 자신의 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작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추측해 보자.

놀람, 당혹, 분노, 두려움, 저항 의지 등으로 매우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2) 이 소설이 일제의 검열에 걸린 이유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식민지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의 현실, 검문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 등을 통해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 읽고 생각

1.그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시골자와 그의 동행이 자신의 말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하기도 했을 것이다.

2. ‘겔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북선 지방은 남선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인의 세력이 덜 미친 상태이다. 또 조선, 특히 남선 지방의 조선 농민들은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기회만 있으면 살길을 찾아 만주로 가거나 일본의 도시로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나’가 조선의 비참한 농촌 현실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관부 연락선의 목욕탕에서 들은 노동자 모집원의 말

4.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겔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편으로는 불쾌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한다.

5.‘나’가 처음엔 거부하다가 결국 형사의 뒤를 따라선 까닭은 무엇인가?

‘겔자’를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관부 연락선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6.형사들이 ‘나’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7.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승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는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분노에 차 있는 한편 자신이 고독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등 머릿속이 복잡하다.

“한민” 두번째 씬

Ⅰ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품을 팔팔이 오는 것인데,

욕탕에서 대화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은 값싼 노동자가 필요한 일본 국내의 여러 회사와 손을 잡고 조선인들을 속여 데려오는 것이라 밝히는 부분이다. ‘요보’라는 지칭에서 조선인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Ⅱ 나는 여기까지 듣고 ...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욕탕에서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들은 모두 일본인이며, ‘나’는 조선인으로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가난한 조선인들이 욕탕의 일본인과 같은 노동자 모집원들에게 속아서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란다. 또한 ‘가련한 조선 노동자’,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 ‘상판대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의 심정, 그리고 노동자 모집원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Ⅲ ‘을지, 그래서 이자의 힘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윽말 작경으로 이르는 게포군’

교과서에서 생략된 앞부분에서 시골자(촌뜨기)는 자신의 형이 식민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부대의 헌병 군조(하사관)임을 밝히자, 노동자 모집원은 그 말에 반색을 하면서 조선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후 그가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나’는 그가 조선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데 시골자 형의 힘을 빌리려는 생각에 이르는 것이라 짐작한다.

Ⅳ 겔자는 명명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等分)해 보고

두 사람이 ‘병병히’, 즉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듣고 앉았다는 데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폭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분하다’는 ‘분량을 똑같이 나누다’라는 뜻이다. 사전의 이 같은 뜻풀이를 따르면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 보고’는 노동자 모집원이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뒤에 나온 개정본에서는 ‘등분(等分)해 보고’가 ‘이리저리 바라보고’로 바뀌었다.

Ⅴ “에 남선 지방에 ... 나서게 되리다. 허허하.”

노동자 모집원은 남선 지방에 내지인(일본인)이 많이 들어가니 가난한 조선인은 쫓겨서 북쪽의 남만주로 가거나 남쪽의 일

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배를 불리지 못한 채 부종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 변화한 대판(오사카), 동경(도쿄)으로 나가서 잘살아 보겠다는 희망으로 일본으로 가려는 응모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세력이 북선 지역으로 확장되면 그곳 조선인들도 오래지 않아 살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도나도 살길을 찾아 일본이나 만주로 가게 될 것이라 예상하며 즐겁다는 듯 웃는다. 당대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태도를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㉞ 장설에 열복하는 ... 팔팔팔 웃었다.

노동자 모집원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추임새를 넣으며 자신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보고 들어 아는 지식 곧 견문이 넓다고 스스로 믿어 즐거워한다.

㉟ “얼마가 뭐요 ... 근 이젠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에게 여비와 일당 외에 모집 노동자 한 사람당 모집비가 일 원에서 이 원까지 지급되니 수익이 매우 좋다고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별이가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늘어놓는 부분이다. 조선인을 마치 물건처럼 말하며 조선인을 모집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강조하는 데서, 그가 조선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㊱ “잘려구 못하는 것은 ... 하는 수 있나..... 허허하.”

노동자 모집원이 모집 후의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조선인은 순종적이고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금이 싸서 일본 회사에 소개할 노동자로는 가장 좋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모집원은 조선인들을 데려갈 때 노자를 대 주고 빛을 갚아 주는 등 돈을 쓰는데 그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는 일종의 당겨쓴 돈으로서 그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감언이설로 조선인들을 속여 일단 일본으로 오게 하는 데 급급할 뿐, 일본에 와서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노동자 모집인의 무책임하고 악랄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㊲ 스킨두갯줄 권 귀상 도련님인 그레의 나르시는 ...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갖게 되었다.

㊳ ‘시를 짓는 것보다는 ... 생명이니라......’ / 이러한 의미로 율복에 산문시를 쓰면, 자기의 공상과 권리(權利)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농민 특히 자기 소유의 농토가 없는 소작인이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리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굶주려야 하는지 등 농민의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자, 흠과 농사를 예찬하는 내용의 시를 짓던 자신의 비현실적 사고(공상)와 얕은 생각(천려)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다.

㊴ 조반 위의 낮잠은 ... 얼굴이 붉는 것도 시일까?

건강을 염려하여 취미로 농사일을 하는 것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의 노동을 대비시켜 ‘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

㊵ 학생복에 방포를 ...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체격과 말투로 보아 조선인임이 분명한데 그 사실이 드러날까 보아 불안한 심리가 ‘겉자’의 언행에 분명하다.

㊶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회극을 연기(演技)하는 영부세의 격이었다.

‘겉자’와 ‘나’는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본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주변의 일본인들은 두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스꽝스러운 희극 연기와 같다는 뜻이다.

㊷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러 일본인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고 느끼며 시선을 피한다. 이후 ‘나’가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㊸ 웃을 다 잃고 문 밖으로 ... 이색해지는 빛이 역력히 보였다.

겉자(여기서는 학생복 입은 형사)는 일본인들이 지켜볼 때 명령하듯이 소리를 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었지만 ‘나’가 문 밖으로 나오자 저자세를 취한다. ‘나’는 이를 보고 그가 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조선인이라는 정체는 탄로 날까 염려하고 있다고 짐작한 끝에, 그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

㊹ 선실 내의 수백의 눈은 ... 더 쬐울 수가 없었다.

수많은 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짐 조사를 당하게 된 '나'는 큰 수치심을 느낀다.

177 **펼쳐 사람의 일을 끌어서, 아까 사 가지고 풀이은 뉘도 그곳까지 가지고, 가명을 끌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귀를, 띠려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준비한 도시락까지 챙겨 들고 나섰다는 것이니, '나'가 매우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보여 준다.

178 **화가 나는 것을 주리 참듯 참고**

주리는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인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을 참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안간힘을 다해 참는다는 의미이다.

179 **서적을 하나씩 풀이 보아 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다.**

지식인 선객의 경우 그가 지닌 서적에 대해 매우 자세히 검열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184쪽을 보면 양복쟁이가 서류 멩텅이를 갖다가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자 '나'가 이를 기꺼이 승낙하며 "원래 나에게서는 사회주의라는 '사'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 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보아 형사들이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을 경계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 천황제,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내용의 서적이 있는지 살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80 **비뚤한 해기(海氣)를 품은 ... 끌리져 왔었다.**

'나'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형사들은 수상한 인물인 '나'를 의심하여 불온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형사들이 짐 실는 인부 소리나 파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데서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가 드러난다.

181 **그러나 1분, 2분 ... 초초했다.**

흐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자잘하게 세면서,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나'의 심리를 드러 낸 부분이다.

182 **하여간 무사히 평안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필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냈다.**

'나'가 급하게 다시 배에 올라타면서 무사히 풀려났다는 데 안도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183 **기름 쓰는 듯한 경적과 ...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나'는 배가 출발하면서 나는 소리가 처량하고도 요란하다고 느낀다. 이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불시에 형사들로부터 검문을 받으며 수모를 겪은 '나'의 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별판과 바람이 쓸쓸하다고 표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84 **나는 선심도 풀이갈 생각도 없이 ... 눈은 뾰근뾰근할 뿐이다.**

'나'는 과도한 긴장 상태, 심리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 머릿속이 복잡하고,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앞에서 겪은 사건을 고려할 때, '나'의 이러한 상태는 형사들의 폭거에 대해 분노하는 한편, 자신이 그러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고독감과 슬픔 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나'는 자신을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에 비유하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떠도는 자와 같이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엄청나게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185 **외부 포켓에다가 두 손을 저르고 ... 여견히 섰었다.**

'나'가 흘리는 '뜨끈뜨끈한 눈물'에는 앞에서 말한 분노, 무력감, 고독감, 슬픔 등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가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닦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186 **나는 짧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며 전에는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을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만세전>의 뒷부분 가운데 '무덤'과 관련 깊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인공 이인화는 경성(서울)까지의 여행길을 통해 식민 지배 세력이 조선인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구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한다. 또한 그러한 현실에 놓인 조선인들이 순종적이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 이 때문에 '나'는 당대 현실이 무덤과 같다고 인식하고, 자신을 포함한 조선인들은 그 무덤 속 구더기와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안의 목욕탕에 들러 탕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苦力] 말씀이에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결자는 병병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等分) 해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제미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불러진 고사하고 반년짜는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이 나서 뉘질 지경이면, 변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두 나두 하고 침을 하다시피 해 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은 미치지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구에는 동냥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다. 하하하.” (중략)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 인간성이 어떠한 사회가 어떠한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工夫子)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였다. 나두 팔구 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발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발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옥(馥郁)한 생기가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 이니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팻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값이다.

나는, 몸을 다 훑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대는 틈에서 부리나케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李寅華)란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에,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결자의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결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단은 유창하게 한담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도 짓곳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 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울지 같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演作)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 있건 예서 하구려.”

그래도 나는 기연가미연가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하였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슈.”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의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우.”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늘어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힘끔힘끔 결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 염상섭, <만세전>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욕탕’은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공간이다.
- ② ‘대판, 동경’은 조선인들이 살기 어려워 살길을 찾아 가려는 곳이다.
- ③ ‘책상 도련님’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나’의 상태이다.
- ④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이 많아 식민 지배가 심한 지역이다.
- ⑤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는 나에게 공핍한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 인물이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0년 소설 문학의 중심적인 사조는 사실주의였으며 이 시기 소설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였다. 사실주의적 세계의 인식방법은 소설의 현실 인식의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식민지 조국의 현실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으며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 ①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흙의 방순함에 취해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당대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속아 공장으로 팔려가는 현실을 비참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④ 조선인을 향한 일본인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관심이 개인적인 삶에서 식민지 조선의 환경으로 옮겨져 현실 인식에 대한 깨달음을 보이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인식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시대 현실을 반영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현실 문제가 부각된다.
- ③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망하고 있다.
- ④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⑤ 익명의 인물들에 대한 관찰 및 대화를 통해 서술자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염상섭의 「만세전」은 잡지 <신생활>에 연재되었으며, 원래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이는 1910년대 조선의 절망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악한 무단정치, 가혹한 수탈,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 지식인의 고뇌와 각성 등이 뒤섞여 있는 묘지와 같은 상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라는 표현에서 조선을 수탈하는 부정적 세력을 묘사하고 있어.
- ②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 서술자는 조선의 절망적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 ③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서 시대적 소명을 지닌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에서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어.
- ⑤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에서 가혹한 수탈로 인해 무기력해진 조선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리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꼭
[A] 싫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빛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가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육객의 한 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훑치기 시작하였다.

<중략>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흠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땀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흠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흠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 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밥을 품삯이다.

<중략>

여덟 눈과 네 개의 손은 앞에 뉘어 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여덟 입술은 꼴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검검한 골짜기에, 밀운(密雲)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海氣)를 품은 차디찬 저녁 바람이, 쿿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서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싸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 놓고, 검시(檢屍)나 하는 것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히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육신육신해졌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릿느릿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

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 시계를 꺼내 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갈 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멩덩이를 들어 뵈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갖다가 보고, 맥으로 보내 드려도 관계 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言下)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야. 원래 나에게서는 사회주의는 ‘사’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는 물론이러니와, 독립이라는 ‘독’ 자도 없었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아니 설령 내가 불세비기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心寫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꺾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중략>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스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송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력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全市)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 가고 수효가 줄어 가면서, 깜작깜작 줄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의 날날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려니 하는 생각을 할 제, 선훈선훈 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 가는 불빛이 따듯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뜻산뜻 스며들어 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 염상섭, 「만세전」 -

비술고등학교 (대구)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거짓말로 조선인을 속여 일꾼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② ㉡ : 농사의 어려움과 농사꾼들의 궁핍함이 드러난다.
- ③ ㉢ : 검열을 하는 자와 당하는 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 당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려는 서술자의 우호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⑤ ㉤ : 현실에 대한 분노와 자조적 심경 등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광희고등학교 (경기)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세전」은 『신생활』과 『시대일보』(1924. 4. 6~6.7)에 발표된 작품으로 연재될 당시에는 「묘지(墓地)」라는 제목이었는데, 검열에 걸려 연재 3회분이 전문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삭제된 부분을 포함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만세전」으로 제목이 고쳐졌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도쿄 유학생인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동안 목격하게 되는 여러 현실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착취와 궁핍 속에 사는 당시 조선인들의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 ②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본의 비인간적 행태를 폭로하고 있어.
- ③ 당시 조선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한 것 같아.
- ④ 식민 통치 세력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에 걸린 것이겠지.
- ⑤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목욕탕 장면을 설정한 것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거야.

대전대성고등학교 (대전)

7. [A]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㉑와 ㉒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조선 농민들은 일본인 노동자 모집인들의 (㉑)에 속고, 술중(術中)에 빠져 (㉒)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 | |
|--------------|------------|
| ㉑ | ㉒ |
|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 초미지급(焦眉之急) |
| ② 감탄고토(甘呑苦吐) | 속수무책(束手無策) |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사면초가(四面楚歌) |
|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초미지급(焦眉之急) |
| ⑤ 감언이설(甘言利說) | 속수무책(束手無策) |

대전고등학교 (서울)

8.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서술자는 여행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처음 출발 지점인 동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보아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겪은 여러 에피소드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는 다양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다양한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평고등학교 (경기)

9. 윗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㉑. 시대와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가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㉒. 과거 회상을 통해 지난 일에 대한 주인공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㉓.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인물들의 대립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㉔. 익명화된 인물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보편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㉕.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휘를 통해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① ㉑, ㉒
- ② ㉒, ㉕
- ③ ㉑, ㉒
- ④ ㉑, ㉒, ㉕
- ⑤ ㉑, ㉑, ㉒, ㉕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3-(1) 모닥불

1.④ 2.④ 3.① 4.'비', '폭설', '담'이 유사한 시적 의미를 지닌다. 5.1, 2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은 열거법으로 조사 '도'를 사용하여 같은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6.④ 7.④ 8.③ 9. (가)는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드러낸다.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소재를 열거하며, 조사 '도'의 반복으로 운율과 의미를 더한다. 또한 과거 회상과 현재 상황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고단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는 시구를 반복하고, 특정 조사 '에서', '에'를 반복하며, 비유법을 사용하여 '모닥불'을 '한 그루 향나무'에 빗대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닥불을 피어오르는 장소와 시간을 열거하고 있다 10.④ 11.③ 12.⑤ 13.② 14.⑤ 15.③ 16.② 17.④ 18.① 19.⑤ 20.④ 21. '제비'는 관리들의 수탈로 살 곳을 잃은 힘없는 백성이고, '느릅나무 왜나무의 구멍'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또한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층을 뜻한다. 따라서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22.⑤ 23.② 24. (A) 할아버지의 불행한 과거 (B)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25.② 26.②⑤ 27.(2), 사람과 동물 모두가 함께 어울려 모닥불을 쬐는 모습을 드러내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28.④ 29.③ 30.⑤ 31.③ 32.④ 33.① 34.④ 35.①

3-(1) 농무

1.① 2.④ 3.③ 4.㉠ 달 ㉡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 5.㉢ 운동장 ㉣ 소줏집 ㉤ 도수장 앞 6.④ 7.② 8.도수장 9.⑤ 10.⑤ 11.⑤ 12.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이나, '도시노동자'들은 소외된 사람들로, 이들이 겪는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적 문제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3.① 14.② 15.③ 16.⑤ 17.① 18.⑤ 19.② 20.(가)의 '나'는 농민 개인이고, '우리'는 농민들이고, (나)의 '나'는 도시노동자 개인이고, '우리'는 도시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의 시적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 사회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1.④ 22.③ 23.② 24.④ 25.① 26.② 27.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산업화에 소외된 자들의 슬픔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는 농촌 노동자로 자신의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나)는 도시노동자로 체념적 모습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28.④ 29.② 30.④ 31.① 32.③ 33.① 34.④ 35.⑤ 36.⑤ 37.③ 38.④

3-(2) 구운몽

1.㉠ 꿈 ㉡ 깨달음을 얻기 전 <구운몽>의 성진은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을 추구하지만, <조건1>의 '조산'은 사랑의 성취를 바란다. 2.⑤ 3.⑤ 4.④ 5.② 6.① 7.⑤ 8.② 9.④ 10.㉢ 성진과 팔선녀(아홉 명의 인물) ㉣ 삶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덧없음(인생무상) 11.㉦ 신라, 낙산사 ㉧ 정토사 12.⑤ 13.② 14.③ 15.몸: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다. 말씀: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했다. 뜻: 세상의 부귀영화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여 한탄했다. 16.① 17.④ 18.② 19.(가)는 '정토사'라는 구체적 증거물이 존재하므로 '전설'이다. 20.② 21.④ 22.⑤ 23.③ 24.⑤ 25.⑤ 26.③ 27.② 28.④ 29.④ 30.③ 31.④ 32.⑤ 33.(1)인생무상, 한단지몽, 일장춘몽, (2)세속적 욕망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① 35.⑤ 36. <보기>의 주제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이며, '꿈'은 인생이 한순간 꿈과 같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7.③ 38.④ 39.④ 40.①

3-(2) 만세전

1.⑤ 2.② 3.③ 4.② 5.④ 6.⑤ 7.⑤ 8.⑤ 9.② 10.③ 11.① 12.② 13.③ 14.② 15.① 16.① 17.⑤ 18.④ 19.② 20.⑤ 21.일제가 감추고 싶은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① 23.① 24.④ 25.⑤ 26.⑤ 27.④ 28.② 29.⑤ 30.①② 31.② 32.⑤ 33.③ 34.'민족적 활로'는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고 독립을 도모하는 길을 의미하고, '몽유병'은 식민지 상황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조선인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35.④ 36. 두 작품은 여로형 구조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뒷글에서의 판단 근거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올라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서의 판단 근거는 '구보 씨'가 정오에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전차를 타고, 경성역을 찾아가고, 다방에서 친구를 만난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동안 이동한 공간에 따라 이

3-(1) 모닥불

2.④

▶④는 병자호란의 패배를 바탕으로 했기에 ㉠과 관련됨.

◆주제 저장소◆

① <내 마음 버혀 내여>: 연군의 정
 ② <강호에 겨울이 드니>: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③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하니>: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그윽한 경지
 ④ <풍설 석거친 날에>: 나라의 치욕을 보고도 죽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 한탄함
 ⑤ <강산(江山) 초흔 경(景)을>: 자연을 즐기는 삶

6.④

▶(나)의 모닥불은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의지를 뜻함.

8.③

▶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곳은 '슬픈 력사'임.

▶넣어둬, 패턴 공략◀

문학에서 '사실적', '구체적', '묘사', '대화', '행동', '일상'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10.④

▶사건의 교차는 없음.

11.③

▶닭과 개가 아니라 닭의 짹개 개터럭임.

12.⑤

▶어려운 농촌 사정을 고려할 때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3.②

▶같은 조사(도, 에서 등)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리듬을 살리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4.⑤

▶'서러운 아이'로 '몽둥발이가 된' 과거 사연을 소개한 것을 통해 민족 화합을 이끌어 낼 순 있으나 이것이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님.

15.③

▶㉠은 부정적 존재로 시적 화자가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아님.

▶응, 헛갈리지 마!◀

연민 vs 미안함 (★)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을 비슷하게 여기는 수험생이 많은데 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16.②

▶(나)에서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는 것임을 알 수는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줄줄줄)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18.㉠

▶(가)와 (나)는 화자의 감정(슬픈, 원통하다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3.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4.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 '펼 펼 나는 저 <피꼬리> / 압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19.㉡

▶㉠의 '타는 모닥불'은 '몽둥발이'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원인(A)+결과(B)의 유형
-A 때문에 B하다.
-A는 B하게 하다.
-A가 B를 일으킨다.

20.㉢

▶[D]에서는 '신명'은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으로 체념적 태도에 대한 일을 잠시 잊는 것이지 이것이 극복되는 것은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등장하는 현대 문학의 시대적 배경:
개화기, 일제, 광복, 전쟁, 독재 정치, 산업화&도시화 등

22.㉤

▶영탄적 어조는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시제별 관련 요소 (★)

- ㄱ. 과거: 회상, 추억
- ㄴ. 현재: 현장감, 사실감
- ㄷ. 미래: 가정, 추측, 의지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25.㉦

▶윗글과 다르게 <보기>는 색채 이미지(동백꽃, 눈발 등)를 드러내며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 다.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